

한·미 FTA 마케팅... “유통업계는 할인중”

주스 45%·오렌지 20%·와인 15% 등 주류·과일 등 관세 인하품목 중심 돌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15일)에 맞춰 지역유통업체가 주류, 과일 등 관세 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미리 가격을 낮춰 미국산 상품 할인 판매에 돌입한다.

FTA 발효 전에 수입해온 제품으로 관세인하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사전 기획 등을 통해 마케팅 차원에서 준

2000원에 판매한다. 광주지역 이마트 5개 점(광주·광산·동광주·봉선·상무)도 15일부터 28일까지 미국산 와인 ‘아포틱 레드’(750ml)를 반값 수준인 1만7500원에 판다. 또 미국산 와인 판촉을 위해 와인 80여 종을 15%에서 최대 40% 할인할 계획이다.

20% 할인된 5440원, 2300원에 판매된다. 미국산 과일도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미국산 대표 수입과일인 오렌지는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6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포도도 5년에 걸쳐 45%의 관세가 없어진다.

다. 오렌지, 망고, 포도, 자몽, 체리, 딸론 6개 품목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배 이상 늘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해왔다. 롯데마트는 이미 수입해 왔던 미국산 쇠고기, 과일 등에 대해서 15일 이후부터 할인이나 가격 인하 등을 단행할 계획이다.

카드 부가혜택 ‘반토막’

신용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반년 만에 부가서비스를 절반 이상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할인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 없었으나 각종 제한 조건이 신설되면서 30만~50만원 정도는 써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는 이 조별로 올해 2000억~3000억원 가량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류업계 ‘소폭’ 바람

하이트 진로 ‘소맥 자격증’ 이벤트 대선주조 황금비율 ‘예맥잔’ 개발

주류업계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폭탄주(소맥)’ 마케팅을 앞다퉈 전개하고 있다. 직장인은 물론 대학가에도 ‘소맥’이 대세를 이루면서 업계가 앞다퉈 소맥 문화를 활용한 판촉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소맥자격증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하이트진로는 소비자의 호응이 이어지자 이달 중 추가로 프로모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화이트데이엔 달콤한 와인으로 1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와인매장에서 화이트데이(14일)를 맞아 ‘와인 페스티벌’을 열고 사탕과 케이크 등과 잘 어울리는 와인을 직원이 선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5년치 선납 가능

만 50세이상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만 50세가 넘는 사람은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게 되고,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연금보험료가 일부 지원된다.

원하는 사람은 신청 시점의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이자를 고려해 할인된 선납보험료를 더해 납부하면 된다. 또 7월부터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존소득월액을 받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연금보험료가 지원된다.



이 예맥잔은 소주의 비율에 따라 ‘즐거위에’, ‘맛있어’, ‘취해’ 등의 눈금과 갈매기 캐릭터를 표시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女風 당당’ 광주은행

정순자 지점장, 요직 PB복합사업부장 임명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이 지난 12일 단행한 인사에서 본부 주요 부서장에 여성을 발탁하는 등 ‘여풍(女風)당당’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급 여성 지점장 탄생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최초로 여성을 영업본부장으로 발탁하는 등 여성의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왔다.



평을 받았다. 이같은 광주은행의 ‘여풍당당’신화 이어가는 남녀 차별없는 인재 중용을 통해 여성 리더육성과 함께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송기진 행장의 철학과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고기값 100g 기준으로 표시”

복지부 입법예고

올 연말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고기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경우 이를 포함한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식점에서 ‘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복장이 전문점

양식장 직영도·소매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이 전문점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스팀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끼시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빌딩 50m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절감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력은 한전으로 역전송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량 400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 설치금액 : 680~880만원 [설치비포함] (설치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